

5. 인도의 대대적인 과세제도 개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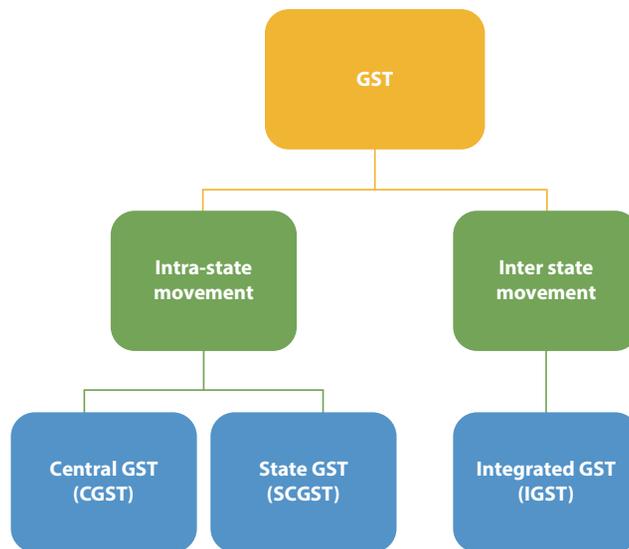
방콕지사

주요내용

▶ 인도의 GST(Goods and Services Tax) 도입

- 인도에는 여러 종류의 복잡한 세목들과 29개의 주가 각기 조금씩 다른 과세제도로 인해 많은 기업인 및 납세자들의 고충이 이어져왔다.
- 지난 2017년 7월 1일 인도의 새로운 통합간접세 GST(Goods and Services Tax)가 발효되었는데, 이는 현재 인도에 존재하는 여러 복잡한 세목들을 통합하여 부정부패 및 지하경제를 바로잡고 명확한 과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. GST로 인해 전체적인 세율은 상승했지만, 세금공제 시스템을 통한 이중과세 방지 및 물품·서비스거래의 투명화로 업무 효율성 증가 및 납세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GST의 세율은 품목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크게 0%, 5%, 12%, 18%, 28%로 나뉘며, 이외에 담배, 술, 보석, 고급차량 등의 사치성 제품은 별도의 세율이 붙는다. 또한 GST의 세목은 Central GST, State GST와 Integrated GST로 나뉘는데, 거래 발생 지역에 따라 세목 및 징수기관이 분류된다.

| GST 구조 |



주내 거래 (Intra-State)

예를 들어, 한 주(State) 내에서 GST세율 18%의 상품이 거래될 시, CGST 9%와 SGST 9%의 세목으로 각각 절반씩 나뉘어 부과됨. (중앙정부가 9%, 거래가 발생한 해당 주의 정부가 9%만큼 징수함.)

주간 거래 및 수입 (Inter-State)

예를 들어, 주와 주 사이 혹은 수입으로 GST세율 18%의 상품이 거래될 시, IGST의 세목으로 통합되어 18%가 부과됨. (중앙정부가 18% 모두 징수함.)

▶ GST로 인한 주요 변화 리스트

- GST 발효 이후, 앞서 말한 이전에 존재했던 복잡한 세목들이 2가지의 징수기관인 중앙정부와 주정부로 분류되어 통합되었다.

I GST로 인해 통합된 세목 리스트 I

중앙세 (Central Tax)	주세 (State Tax)
- 소비세 (Excise Duty)	- 부가가치세 (VAT)
- 추가 소비세 (Additional Excise Duty)	- 흥행세 (Entertainment Tax)
- 추가 관세 (Additional Customs Duty)	- 사치세 (Luxury Tax)
- 특별추가 관세 (Special Additional Duty of Customs)	- 진입세 (Entry Tax)
- 서비스세 (Service Tax)	- 중앙매출세 (Central Sales Tax)
- 추가세 (Surcharge & Cess)	- 구매세 (Purchase Tax)
- 약품 및 화장품 소비세 (Excise Duty levied on Medical and Toiletries Preparations) 등	- 사치세 (Luxury Tax)
	- 추가세 (Surcharge & Cess)
	- 복권/배팅/도박세 (Taxes on Lottery/Betting/Gambling) 등

* 출처: cleartax.in

I GST 이후 주요 품목 세율표 I

세율	품목	서비스
0% (면제)	신선육, 생선, 닭, 계란, 우유, 버터, 두부, 천연 꿀, 신선과일 및 채소, 밀가루, 빵, 소금, 우표, 사법 논문, 신문, 씨 및 볶가루, 곡식, 그림 또는 그림책, 등	객실요금 1,00루피 미만의 숙박시설 등
5%	생선살, 가공식품, 신발, 크림, 탈지분유, 냉동야채, 커피, 차, 향신료, 러스크, 석탄, 의약품, 구조선, 얼음 및 눈, 바이오가스, 연 등	철도 및 항공 운송서비스, 작은 식당 등
12%	냉동 육류, 치즈, 건조과일, 동물성지방, 소시지, 과일주스, 가루치약, 케첩 및 소스, 우산, 재봉틀, 핸드폰, 주방용품, 안경, 놀이용 카드, 체스보드, 등	국영 복권, 에어컨 없는 호텔, 비즈니스 항공권, 비료 등
18%	상표, 영업권, 소프트웨어, 비스킷(모든종류), 향첨가 시럽, 파스타, 케이크, 잼, 수프, 아이스크림, 인스턴트식품, 휴지, 봉투, 공책, 철제품, 카메라, 스피커 및 모니터, 모자 및 헬멧, 호일, 저울 등	에어컨 및 주류 제공 호텔, 통신서비스, IT서비스, 브랜드 의류 및 금융 서비스 등
28%	자동차, 오토바이, 전동기, 페인트, 탈취제, 면도크림, 면도기, 샴푸, 염색약, 벽지, 온수기, 식기세척기, ATM, 진공청소기, 자외선 차단제 등	국가가 승인한 개인운영 복권, 객실요금 2,500~7,500루피의 숙박시설, 극장 등

* 출처: cbec.gov.in

- GST 세율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자재, 식자재, 단순가공제품 등의 세율은 전체적으로 낮고 전자기기 및 가공품의 세율은 높은 편인데, 이는 인도 정부가 수입산 전자기기 및 사치성 제품 등의 소비를 저지하고 자국 내 제조 및 생산을 장려하려는 것이다.

▶ 분야별 GST의 영향

| GST로 인한 소비자 지출 품목 세율 변화 |

					
	식품	엔터테인먼트	교통	가정 생활용품	이동통신서비스
Before	12.5%	30%	15%	28%	15%
After	5%	28%	18%	18%	18%

* 출처: cleartax.in

- FMCG (Fast-Moving Consumer Goods - 식음료, 소비용품과 같이 소비속도가 빠른 비내구성 제품)
 - GST 시행이후, FMCG 제품들의 관세율이 평균 5~6% 가량 하락했으며, 해당 분야의 기업들 대부분이 GST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
 - 의료서비스의 세율은 0%로 그대로 유지되지만, 의약품의 세율이 기존 10%에서 12%로 증가해 환자들이 직면하는 지출비용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내구소비재
 - 20%대 초중반의 세율을 유지하던 백색 가전제품 및 주방용품은 일괄적으로 28%로 증가되었으며, 전체적인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항공사
 - 비즈니스 클래스는 기존 9%에서 12%로 증가했으나, 이코노믹 클래스는 6%에서 5%로 하락했으며, GST제도의 세금공제는 이코노믹 클래스의 한에서만 가능하다.
- 자동차 및 차량 부품
 - 저급 및 고급차량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세율이 증가했으며, GST 발효날짜인 7월 1일 이전에 생산 및 제고된 차량에 대한 세금공제 적용이 되지 않아 여러 업체들의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될 바 있다.

* 참고자료

- Financial express, 「GST Tax Calculator」(2017.6.30.)
- GSTINDIA, 「GST with examples」(2015.6.11)
- UdyogSoftware, 「Import of Goods and Services」(2016.2.29.)
- EXPORT GENIUS, 「How to Calculate Import Duty after GST」(2017.7.6.)
- QUORA, 「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preseat system and the new GST」
- The Economic Times 「A quick guide to India GST rates in 2017」

시사점

- GST로 인해 여러 세목의 통합과 시장단일화로 해외투자자와 무역이 용이해져 현재 상위권을 자랑하는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인도의 소매시장은 세금을 내지 않는 무자료, 현금 거래 위주였으나, 이번 GST 개혁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GST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통단계의 축소 및 소매업계의 대형화, 시스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향후 인도의 소매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.